대중과 함께 하는 과학출판을 위한 제언

번역서 위주의 단발성 기획이 문제…
참신한 기획과 국내 필자 발굴이 관건

김동광 | 과학세대 대표
김두희 | 월간 《과학동아》 편집장 · 사회
이충호 | 번역가

최근 출판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대중서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학대중서의 질적 수준이 양적 증가에 비해 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과학대중서 출판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을 들어봤다.

김동광

"지금까지 번역 위주의 단발성 책을 시류에 따라 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의 연속성을 살리고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과학출판이 가능할 겁니다."

김두희 ——— 최근 출판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대중서가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근의 과학대중서가 정말 충실히 기획되고 선별돼 나오는지, 독자들에게 제대로 소화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쏟아져 나오는 교양과학서가 너무 번역서에 치중돼 있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 ——— 그 점은 과학대중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일본책을 조잡하게 번역한 과학서적이 나오다가 스티븐 호킹의 방한을 기점으로 김영사의 《재미있는 물리여행》 같은 과학대중서 출간이 붐을 이뤘습니다. 당시는 스티븐 호킹의 영향이었는지 과학서적을 찍어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1~2만부 정도 나갔는데, 국내에는 김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필자를 제외하면 과학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때부터 과학대중서가 번역서 위주로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지요.

김동광 ——— 지금 전체 과학서적 중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70% 정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략 80%였는데, IMF이후 국내 저술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대중서를 저술할 국내필자가 부족합니다.

저는 먼저 과학대중서의 문제점으로 번역기획의 부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출판사는 번역기획을 대행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들이 과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필자나 제목만 보고 도서리스트를 작성해 출판사에 배포하는가 하면, 출판사 역시 그 도서리스트를 참고해 번역할 책을 선정합니다. 출판사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외국 유명 필자나 유명 번역자를 누가 먼저 잡는가가 관건이 되지요. 과학출판에서 기획 본연의 의미는 많이 퇴색한 느낌입니다.

과학출판의 질적 수준은 답보상태

이충호 ——— 그 결과 출간 종수는 많지만, 과학출판의 질이 떨어져 상당수의 책들이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대중서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과학출판의 질적 수준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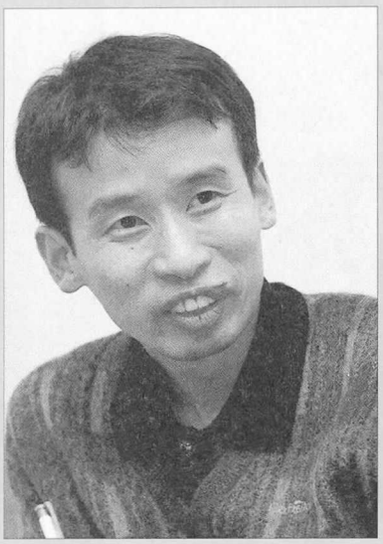
김두희 ——— 번역서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책 선정 이후 번역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광 ——— 다른 나라의 경우, 번역할 책을 선정할 때 번역자까지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책을 선정한 다음 번역자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번역자를 찾지 못해 낭패를 보기도 하지요.

이충호 ——— 번역자를 선정할 때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공자가 번역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김동광 ——— 번역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책 한권을 2년 정도 공들여 번역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같은 책을 단 몇 달만에 끝내지요. 그만큼 번역이 불

"출판사가 국내 필자를 발굴하는 데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전문가에게 원고를 맡겼다가 몇 번 실패를 경험하면 국내 저술을 포기하게 됩니다. 빈곤의 악순환이지요."



이충호

김두희

"과학대중서의 독자층을 좀더 세분화해서 각 독자층에 맞는 새로운 기획을 꾸준히 개발해 전체 과학출판의 다양화를 이뤄낸다면 과학출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 번역가 집단의 역량 중요

김두희 ——— 이선생님께서 비전공자의 번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번역자의 전문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호 ——— 사실 관련분야의 학문적 지식이 많다는 것과 그 지식을 우리 글로 정확히 표현해내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공자가 글을 잘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에서는 번역하고 책을 쓰는데 오히려 전공자가 더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김동광 ——— 전문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대중서를 번역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학문적인 전공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은 특정한 전공자가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때는 대중서라기보다 전문서일 가능성이 높지요.

과학대중서를 번역하는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책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특수한 영역의 지식보다 과학전반에 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영역의 전공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자료를 찾아 참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김두희 ——— 과학출판에서 번역과 관련해 해결돼야 할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과학대중서의 번역수준이 좀더 향상되려면 전문 번역가 집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광 ——— 전문 번역가 집단이 형성되려면 먼저 번역가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에 합당한 보수가 보장돼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지위의 보장이란 번역가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지요. 예컨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번역이 학술적인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번역가가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재생산되려면 경제적 안정이 요구됩니다. 사실 번역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번역가의 경제적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번역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힘써야

김두희 ——— 이제 과학대중서 출판에서 번역서의 비중이 높고 국내저술이 부진한 이유를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김동광 ——— 무엇보다 대중적인 과학서를 저술할 필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저자의 기반이 되는 교수들은 대중적인 글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호 ——— 아까도 말했듯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과 글을 쉽게 잘 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대중적인 글을 써온 소수의 학자를 제외하면, 교수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읽기 쉽게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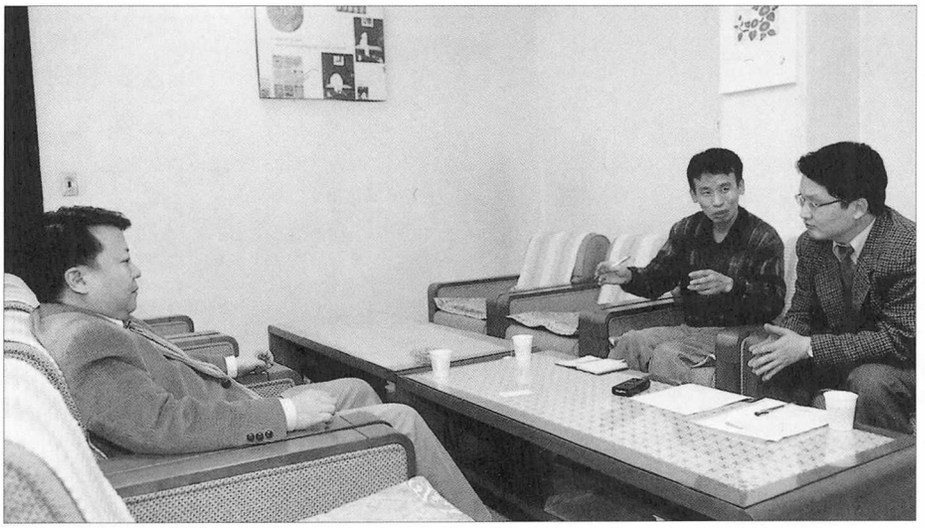
김동광 ——— 그래도 최근 대중적인 글쓰기에 관심 있는 소장학자가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김두희 ——— 자신의 전공 지식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국내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필자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국내저술이 훨씬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판사가 국내 필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충호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안을 마련해서 전문가에게 원고를 맡겨도 마감시간을 훨씬 넘기거나 기획의도대로 좋은 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실패를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국내저술쪽은 포기하게 됩니다. 빈곤의 악순환이지요.

제 생각에는 출판사가 영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본이 넉넉해야 투자하는 셈 치고 필자를 키우거나 새로운 기획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지요.

김동광 ——— 필자 부족을 출판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과학 문제를 논의하려면 국내 필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은 중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지금까지는 독자를 향한 출판사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출판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해서 기획에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아직



과학대중서 출판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참석자들.

과학교양서의 주된 독자층이 누구인지, 펴낸 책을 구체적으로 누가 읽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김두희 ——— 아울러 과학대중서의 타깃을 좀 더 좁히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전체 대중이 아니라 청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그에 맞는 기획안을 꾸준히 개발한다면, 좀더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사계절출판사에서 한 대학의 자연대 교수들에게 집단 기획을 맡겼던 일도 일종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도가 모여 전체 과학출판의 다양화를 이뤄낸다면 과학출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충호 ——— 문제는 그런 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출판사들이 그런 시도를 계속 추진할 여력도 없지만, 그것을 맡을 전문편집자도 없는 형편입니다. 전문편집자의 부족은 출판계 전체의 문제지만, 특히 과학출판은 연속적인 기획을 위해 다른 분야보다 더 전문 편집자가 필요합니다.

김동광 ——— 지금까지 과학출판이 번역 위주의 단발성 책들을 연속성 없이 그때 그때 내거나 시류에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과학교양도서만 해도, 수능시험과 논술고사가 처음 실시될 무렵 잠깐 쏟아져 나오고 금방 수그러들었지요.

일관되고 참신한 기획력으로 책을 내는 출판사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 출판사에서 같은 저자의 책이나 번역서를 계속 펴내 고정적인 독자를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참고해볼만합니다. 기획의 연속성을 살리고, 독자의 반응을 기획에 계속 반영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과학출판이 가능할 겁니다.

사회적 · 제도적인 지원 필요해

이충호 ——— 그래도 최근에는 흥미롭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과학교양서나,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전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학교에서 과학교과서만 읽힐 것이 아니라, 이런 책들 가운데 좋은 책들을 골라 학생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합니다.

김동광 ——— 과학출판의 문제를 출판사에만 책임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이제 도서관이 많이 확충됐는데, 도서관이라도 최소 부수를 소화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책을 구입했지만 요즘 기증을 요구하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야겠지만, 책정된 도서구입비라도 제대로 활용해야지요. 좋은 과학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충호 ——— 좋은 책이 곧 많이 팔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21세기에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양서에 대한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김두희 ——— 두 분 선생님께서 과학출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과학출판이 살아남으려면 일차적으로는 출판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뜨인돌출판사는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를 인세 7%의 계약조건으로 한 일본출판사에 수출했습니다. 이처럼 대중과학서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화한다면 기획출판이 황무지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영화 · 스포츠 · 인문학처럼 대중의 관심을 과학과 결합시킨다거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만화 · 대담 등을 적절히 도입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김동광 ——— 최근 출간된 과학대중서 가운데 과학이 어렵고 딱딱해서 쉽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강박관념은 기획의 범위를 좁히고, '죽은 과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충호 ——— 과학대중서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자층이 두터워 출판사가 좋은 필자를 고를 수 있는 풍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출판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필자 개발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김두희 ——— 과학출판이 걸어가야 할 길이 참 멀고 험하군요. 하지만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면 그 가능성은 크다는 믿음이 듭니다. 바쁘신데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리 · 김정은 기자